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1년 기후 주간을 앞두고, 뉴욕의 교통 분야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주지사, 뉴욕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트럭을 배출가스 제로화하기 위한 2035년 목표를 수립하는 법안(A.4302/S.2758)에 서명

DEC에 트럭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 초안을 발표하도록 지시, 트럭 제조업체에 제로 배출 트럭을 판매하도록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교통 부문에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설정하는 법안(A.4302/S.2758)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트럭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규제안을 건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규제가 채택되면 제로 배출 트럭 판매가 가속화되어 주 전체, 특히 교통 관련 오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대기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2021년 기후 주간을 앞두고 오늘 발표된 조치들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보호법(CLCPA)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5% 줄이겠다는 뉴욕의 야심찬 목표를 지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가장 적극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주 기후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교통 부문에서의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새로운 법과 규제는 우리의 노력에 중대한 이정표가 되고 청정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욱 앞당기는 동시에 수십년 동안 자동차와 트럭으로 인한 오염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던 지역사회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뉴욕에서 판매되는 신규 오프로드 차량과 장비는 2035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며, 2045년까지 중형 및 대형 신규 차량도 이러한 배출량 제로 목표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을 주축으로 오는 2023년까지 배출 제로 자동차 개발 전략을 수립해 법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합니다.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가장 큰 온실 가스 배출원인 교통 부문에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뉴욕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EV** 목표 및 첨단 청정 트럭(**Advanced Clean Truck**) 규정의 성문화는 기후 변화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는 동시에 차량으로 인한 오염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온 지역 사회에서 오존, 미립자 물질 및 이동성 대기 독성 오염을 줄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가 채택되면 뉴욕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트럭의 비율이 **2025** 년식부터 배기가스 제로 차량이 되어야 하며, 뉴욕주는 경제 기회를 촉진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국가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NYSDOT 사장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는 지역사회, 특히 일반적으로 트럭과 차량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오염에 직면해 있는 인구 밀도가 높고, 소외된 지역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른 뉴욕주의 청정 교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뉴욕 시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건강한 거주지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뉴욕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싸움에서 뉴욕주를 전면 및 중심에 두고 뉴욕을 글로벌 기후 변화 퇴치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은 뉴욕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뉴욕과 더 나은 세상을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급 청정 트럭 규칙(**Advanced Clean Trucks Rule**)을 하나의 양식으로 사용하는 발의된 규정은 트럭 제조업체가 청정 전기 제로 배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럭 제조업체는 **2025** 년식부터 차량 중량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배기가스 제로 트럭의 연간 판매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2035** 년식까지 모든 신형 클래스 **2b-3** 픽업 트럭과 승용차의 최소 **55%**, 신형 클래스 **4~8** 트럭의 **75%**, 그리고 뉴욕 주에서 판매되는 신형 클래스 **7~8** 트랙터의 **40%**가 배기가스 제로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발의된 규정은 중형 및 대형 트럭 제조업체에 몇 가지 준수 옵션을 제공하며 해당 트럭 차량으로부터 일회성 보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들이 거주하는 뉴욕의 많은 소외된 지역사회는 대형트럭 왕래가 많은 산업 시설 및 교통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발의된 규정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한 위험과 건강 그리고 오염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을 항구와 철도의 모든 제로 배출 단거리 배수 장치, 배출 제로 "라스트 마일" 배송 트럭 및 밴을 향한 길에 놓이도록 합니다.

CLCPA 요건을 충족하려면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전기 승용차,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전기 기술을 채택해야 합니다. 5월에 기후 행동 위원회(Climat Action Council)의 교통 자문단(Transportation Advisory Panel)은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판매 요건 채택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권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중형 및 대형 트럭(중량 8,500 파운드 이상)은 뉴욕에 등록된 1,060 만 대 차량의 약 5%를 차지하지만 이동 차량의 배출원에서 두 번째로 큰 질소 산화물 배출원입니다. 다운스테이트 뉴욕주의 일부는 오존에 대한 연방 보건 기반 국가 대기질 표준(NAAQS)을 충족하지 않으며 미달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발의된 규정은 교통 부문을 전기화하고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보완합니다. 뉴욕은 향후 5년간 배출가스 제로 차량에 10 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중형 및 대형 트럭 이니셔티브에는 전기차 사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뉴욕 트럭 바우처 프로그램\(New York Truck Voucher Program, NYTVIP\)](#)과 뉴욕시 청정 트럭 프로그램(New York City Clean Trucks Program)인 ["EV Make Ready"](#) 이니셔티브를 통한 제로 배출 트럭 구입 바우처, 자동차 평가 서비스 및 2,400 만 전기 트럭 및 버스 경품 도전이 포함됩니다.

상원 환경 보존 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덕분에 뉴욕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 자동차가 우리의 도로를 지배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교통 부문을 전환하는 도전은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필수적이며 오늘날 취해진 조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지구를 구하는 데 필요한 대담하고 공격적이며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 후원해 주신 Harckham 상원의원과 Englebright 의장님, 발의된 규제안에 함께주신 Seggos 위원장과 DEC 에 감사드립니다."

상원 운송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 위원장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교통수단과 더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뉴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할 지속가능한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주 전역에 걸쳐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기준을 장려하고 있으며, CLCPA 에서 제시한 야심찬 의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ete Harckham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항하여 우리의 투쟁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탄소와 다른 유독성 배기가스가 없는 새로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배출 제로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의회에서 이 법안에 동조한 파트너인 Steve Englebright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대성 폭풍 아이다(Ida)로 인한 황폐화를 통해 다시 한번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 대책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뉴욕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요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기가스 제로 차량으로 전환하면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환경을 해치고, 뉴욕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오염 물질을 극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극한 기상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명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 하원 교통위원회(Assembly Transport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인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은 우리 환경이 직면한 문제적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뉴욕은 지금 조치를 취하고 2035년까지 배출량 제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조치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뉴욕, 14개의 다른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해 캘리포니아 규정 채택을 포함한 버스와 트럭의 전기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가 주들은 배달 트럭, 박스 트럭 및 버스를 포함한 무배출 중형 및 대형 차량의 시장 출시 가속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모든 신규 중대형 및 중장비 차량 판매의 100 퍼센트가 배기가스 제로 차량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 중간 목표는 해당 범주의 차량 판매량의 30 퍼센트를 배기가스 제로 차량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뉴욕과 11개 다른 주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상태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길을 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연방 정부에 2035년까지 모든 신형 승용차와 경형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고, 2045년까지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로가 되도록 보장하는 기준을 정하라고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가 주들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를 강화하며, 충전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반 시설과 다른 개혁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DEC는 뉴욕 시민들이 올해 2월 진행된 가상 이해관계자 회의의 일부로 포함된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논평하도록 독려합니다. 규정 초안([DEC 웹사이트](#)에서 검토 가능)은 2021년 11월 17일 오후 5시까지 의견 공개가 가능하며, 2021년 11월 9일 오후 2시에 가상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교통 부문을 전기화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여러 기관 및 당국의 노력과 투자 외에 제로 배출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된 요구 사항은 뉴욕이 특히 뉴욕시 수도권에서 야심찬 기후 목표와 연방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가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에 걸친 91 개의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에 210 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68 억 달러, 태양열 발전을 위한 18 억 달러, 청정한 운송 이니셔티브를 위한 10 억 달러 이상, 뉴욕 그린뱅크(Green Bank) 공약에 12 억 달러 이상 등 청정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뉴욕의 전례 없는 투자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19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50,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 조 BTU 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